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민관학 나선다

### 전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 개최

### 마을학교 활동가 기획...마을과 학교 상생 모색



지난 1일~2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는 '2020. 전남 마을교육공동체 새 길을 만드는 실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마을교사, 학교교사, 교육청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의 민·관·학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한 행사였지만 워크숍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전남 최초로 마을학교 교사, 마을활동가들이서 의미를 더했다.

22개 시·군의 마을활동가와 마을교사, 중간 지원조직 등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단을 구성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마을 교사들의 알고 싶은 것을 사전에 조사해 워크숍의 토론주제로 선정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주제토론 발표자로 나선 순천 별량초등학교 강성운 교장은 "지역의 교육력을 키우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

서는 시군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또 묘량 개움마을학교의 이민희 대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중심을 두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학교 한 관계자는 도청 추진 마을공동체사업과 도교육청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통합운영을 제안했고, "마을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마을학교 지원 예산이 활동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워크숍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참가자들의 토론 결과 발표에 함께 참여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마을을 살리는 것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의 복지와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에서 온 한 마을학교 교사는 "지금껏 마을학교를 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학교교사, 마을학교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우리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함께 고민한 것이 처음."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민·관·학이 함께 협의하는 날을 정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둘째날은 도교육청의 김유동 장학관의 설명으로 전라남도의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이 소개됐고, 참가자들은 2시간 가량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혁신교육과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7일 공포될 전남도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민·관·학 교육협의체와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마을학교를 지원해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시·군의 민·관·학 주체가 한자리에 모이고 이후 함께 협력적 사업 추진을 약속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별 중심 주체들이 발굴돼 전남의 모든 시군에서 체계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교육청, 방과후교사 역량 강화



해를 위해 내년도 방과후학교 주요 사업 내용,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방과후학교 발전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사례 중심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는 방과후학교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4일 광주시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전담 및 보조인력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이레네메모리 열거족상담센터 이동진 센터장을 초빙해 학부모 상담, 방과후학교 강사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방과후학교의 업무 및 정책의 올바른 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강수 초등교육과장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하락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다"며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교육수요자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전남수학축전·영재교육 성과 발표회 성료



6명이 전남 교육 가족을 대표해 5개 시 17개 군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희망 메시지를 대형 와키워드 구조물에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해

전남도교육청이 1일~2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타크에서 개최한 제5회 전남수학축전 & 제16회 전남 재능계발 영재교육 성과나눔 발표회'에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 6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들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수학, 과학, 정보, 발명,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장이 됐다.

여수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전남수학축전 과 영재교육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전남수학축전의 발자취와 영재교육 현황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장석웅 교육감, 전라남도 총

의회 의원, 교사, 학생, 학부모 총 6명이 전남 교육 가족을 대표해 5개 시 17개 군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희망 메시지를 대형 와키워드 구조물에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제5회 전남수학축전은 '수학에 상상력을 더하고 무관심은 빼고 기쁨을 곁들여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80여 개의 체험 부스, 급성관 및 나주향교 일대를 투어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전남 매쓰투어 프로그램, 수학창의력대회, 수학 통계 포스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 화순오성초, 도전정신과 태극으로 마라톤대회 수놓다

###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참가



화순오성초등학교는 지난 3일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9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150여명이 참가하여 모두 다 도전 코스를 완주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이날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일로 화순오성초 학생들은 머리에 태극 문양의 머리띠

를 착용하고 주로를 달리며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도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 처음 참가한 화순오성초는 올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남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소통, 배려, 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전 활동의 일환

으로 1학기에는 무등산, 만연산 등 화순의 명산을 등반하였고, 이번 2학기에는 화순고인돌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도전을 성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 직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스스로 도전 코스를 정하여 대회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4학년 학생은 일반인도 완주하기 힘든 하프코스에 도전하여 2시간 31분 24초라는 우수한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여 주위 사람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10km를 완주한 화순오성초 조영래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마라톤대회 참가와 완주라는 측면은 아닐 것이다. 친구와 손을 잡고 서로 응원해주며 달

리는 모습, 가족과 함께 박자를 맞추어 뛰는 모습, 선생님께 힘들다고 하소연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큰 성장을 했으리라 확신한다. 점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도전하지 않고, 수동적인 학생이 많아지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의욕 넘치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학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내일 학교에 돌아 가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우리 학생들을 칭찬해주겠다."고 말했다.

화순오성초는 매년 도전 활동 프로그램으로 1학기에 화순 명산 등반, 2학기 마라톤대회 참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걸으면서 내 고장을 알아가는 화순대장정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순=박순철 기자

